

■ 첼리스트 요요마와 실크로드 연주 여행 호남예술제 출신 비올리스트 김유영

# “동·서양이 빛어내는 앙상블 감동이죠”

합평 출신 비올리스트 김유영(27)씨는 이달 초 중국 상하이에서 열렸던 스페셜 올림픽(장애인 올림픽) 오프닝 콘서트를 잊지 못했다. 세계적인 첼리스트 요요마와 함께 한 이번 공연은 후진타오 주석과 배우 청룡을 비롯한 1만여명이 관람했고 공연 상황은 전 세계에 생중계 됐다.

현재 뉴욕주립대 아티스트 디플로마과정을 밟으며 같은 학교에서 전임 강사로 재직중인 김 씨는 요요마가 이끄는 ‘요요마와 실크로드 앙상블(Yo-yo ma and silkroad ensemble)’ 단원으로 활동하는 등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비올리스트다.



김 씨가 요요마와 인연을 맺게 된 건 지난 2003년 카네기홀 오디션에 참가하면서 부터.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15명의 연주자는 요요마와 2주간 생활하며 카네기홀 등에서 8차례의 연주를 가졌고 김 씨는 이번 중국 투어부터 정식 멤버로 초청받았다. “당시 요요마로부터 배운 음악적, 문화적인 가르침들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됐어요. 헨리 멘시니 음악 페스티벌 등에서 쾨시 존스와 연주하는 등 클래식 이외의 장르에도 관심이 많아요. 실크로드 앙상블

은 여러나라 전통 음악가들이 모여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연주한다는 게 참 매력적이었죠.”

다섯살 때 바이올린으로 음악을 시작한 김 씨는 용봉초등학교 1학년 때 호남예술제에 참가했으며 서울대 재학생이던 2000년 도미, 커티스 음악학교(학사), 줄리어드 음대(석사)를 졸업하고 예일대 연주자 과정을 수료했다.

“비올라는 똑똑도 좋지만 다른 악기와 함께 연주할 때 더 큰 매력을 느낄 수 있어요. 바이올린보다 낮고 첼로보다 높은 음역을 갖고 있는 비올라는 앙상블을 더욱 풍요롭게해요.”

## 카네기홀 등서 8차례 연주회도

(주)푸림 김여석 사장의 외동딸인 김 씨는 내년 1월 10일 삼성그룹 초청으로 리움 미술관에서 독주회를 열어 2월에는 뉴욕에서 바이올리니스트 예일 스톱과 듀오콘서트를 갖는다. 또 다음달 뉴욕 드와이트 스톱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설과 함께 연주를 들려주는 워크숍도 진행한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더욱 배우는 느낌입니다. 학생에게 문제가 생길 때 함께 고민하고 고쳐가다 보면 그게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김 씨는 미국에서 생활인으로, 음악인으로 살아가면서 접한 다양한 문화들과 그들과 나눈 음악들을 한국에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상하이 장애인 오프닝 공연

요요마가 1998년 시작한 ‘실크로드 앙상블’은 실크로드를 따라 유럽에서 극동 지역까지 방문하며 지역 전통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연주 여행으로 클래식 악기와 각 나라의 전통악기 연주가 참여하고 있다. 최근 홍콩·중국 투어를 마쳤고, 내년 4월에는 일본에서 연주회가 열린다.

“장애인 올림픽이 ‘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는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모인 음악가들이 다양한 악기로 함께 음악을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저희 역시 새로운 도전에 성공했다는 느낌에서 뿌듯했어요. 특히 요요마는 매 콘서트마다 저를 한국에서 온 김유영이라고 소개해 줬는데 그게 저에게 큰 자부심을 줬어요.”



##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오늘의 작품

김은실 작 '한 LED'

# 전통 한지와 LED의 만남

전통 소재인 ‘한지와 LED의 만남’을 주제로 제작된 작품으로 2007광주디자인비엔날레 특별전인 ‘남도디자인 자산 100선’에서 선보이고 있다.

한지에 LED 빛이 투과할 수 있도록 구멍을 내 빛이 배어나오도록 함으로써 은은한 여성미를 강조하고 있다. 또 전통 한지의 질감을 살려 전통적인 자연스러움을 형상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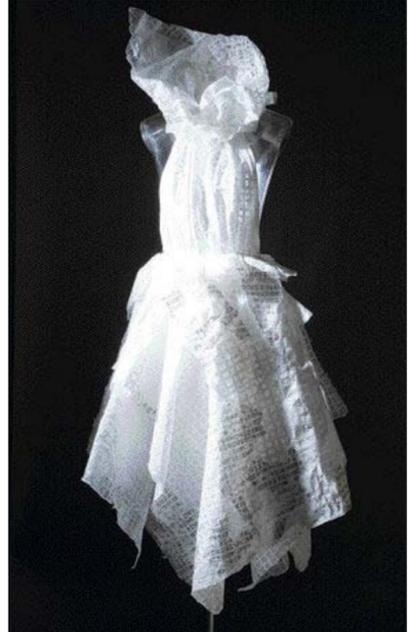
‘한 LED’는 광주의 전략산업인 광산업의 아이템인 LED를 의상에 채택, 남도의 전통미를 돋보이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작품은 조형재료인 LED를 디자인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활로를 개척함과 동시에 다양한 산업 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씨는 한지를 이용한 다양한 의상작품을 각종 전시회와 패션쇼를 통해 선보여온 작가로 전통과 현대를 조화한 작품들을 꾸준히 제작하고 있다.

산자부 주최 지역디자인혁신사업 전임연구원, 전남생물자원지원센터 CI공모전 심사위원을 지냈으며, (재)광주디자인센터 연구개발실 선임연구원을 맡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박화성 다시 읽는다

〈목포 출신 여류 소설가〉

27일 목포문학관 개관 기념 학술대회 개최  
■ 연구자 야마다 요시코 교수 등 대거 참가

목포 출신 여류 소설가로 근대 신여성의 삶을 보여줬던 고(故) 박화성(1904~1988·사진)씨를 재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처음으로 열린다.

‘박화성연구회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서정자 초당대 부총장)는 목포문학관 개관을 기념하기 위해 27일 오후 1시 문학관 세미나실에서 ‘제1회 박화성 학술대회’를 준비했다.

박씨는 목포에서 태어나 정명여고를 거쳐 서울 숙명여고를 졸업했으며, 일본여자대학 영문과를 수료했다. 영광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던 1925년 단편소설 ‘추석전야’로 ‘조선문단(朝鮮文壇)’에 데뷔한 이래 1985년까지 60여년 동안 왕성한 집필 활동을 했다. ‘백화(白花)’(1932), ‘사랑’(1956) 등 장편소설과 ‘하수도공사’(1932), ‘달리는 아침’(1985) 등 중·단편소설집 등을 냈다.

박씨는 장남 천승준씨가 문화평론가이고 차남 승세씨는 1958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맏며느리 이규희씨는 1963년 동아일보 장편 공모에서 각각 등단한 소설가이며, 3남 승걸씨는 서울대 영문학과 교수로 ‘문인가족’을 이룬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박화성이라는 기쁨-지역·여성·문학’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천승준씨가 참가해 ‘어머니 박화성의 풍경’을 제목으로 한 강연을 한다. 허형만 목포대 교수는 ‘박화성과 목포문학’, 김민희씨는 ‘박화성 소설의 인물연구’에 대해 발표한다.

이 밖에 일본의 박화성연구자인 야마다 요시코 교수가 참가해 “바람에 피는 꽃”에 나타난 박화성의 작가의식에 대하여”를 주제로, 고석교 목



포대 교수가 ‘박화성의 시대-목포의 풍경’을 주제로, 변신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가 ‘박화성을 통해 보는 여성, 그리고 근대’를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선다.

지난 2004년 박화성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박화성문학전집’(전 20권·푸른사상)을 펴낸 서정자 위원장은 “연구회 창립을 계기로 이룬 탐구는 물론, 지역의 현상 증언과 자료 탐색을 진행해 박화성 문학을 연구하고 책으로도 그 결과물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061-450-1006.

/정삼필기자 camus@kwangju.co.kr

## 서영화교수 도쿄 프라임 심포니오케스트라 협연

### 25일 동경 후쓰노모리 극장

피아니스트 서영화(조선대 음악교육과 교수·사진)씨가 도쿄 프라임 심포니오케스트라와 협연한다.

서씨는 25일 동경 후쓰노모리 예술극장에서 열리는 연주회에서 베토벤의 피아노협주곡 ‘황제’를 들려줄 예정이다.



도쿄 프라임 심포니 오케스트라(예술감독 백홍승)는 세계적인 플루트 회사 산코 프라마 등이 후원하고 있는 민간 교향악단으로 지난 1989년 창

단 후 160여 차례의 연주회를 갖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다.

조선대 음악교육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뮌헨대 연구교수를 역임한 서씨는 한국음악협회 광주지부 부회장, 조선대 피아노 동문그룹인 ‘선클러비어’ 회장을 맡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日 고바야시 삶·문학 조명 ‘전쟁과 문학’ 출간

일제의 침략전쟁에 온 몸을 던져 저항했던 프롤레타리아문화의 대표 소설가 고바야시 다카지(1903~1933)의 삶과 문학세계를 조명한 비평서가 출간됐다.

아키타현의 농가에서 태어난 고바야시는 일본의 대륙 침략이 한창이던 1929년 계급이 공산에서 흑사당하는 힘없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그린 대표작 ‘게 가공선(蟹工船)’을 출간하고,



지하 활동 중 체포돼 고문으로 옥사했다.

이번에 한국에서 출간된 ‘전쟁과 문학’(제이앤씨)은 고바야시 탄생 100주년·사후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이즈 도시히코 요코야마 시립대학 명예교수가 쓴

것이다. 번역은 김정국(국제관광경영교수) 전남과학대 일본문화연구소장이 맡았다.

저자는 ‘청년 다카지의 방황과 발견’을 통해 고바야시의 생을 조명하고 그의 체질이 작품에 얼마나 리얼하게 묘사돼 있는지 논의를 전개하는 한편 ‘9·11’ 또는 이라크 전쟁 등 현대의 폭력으로 본 고바야시 읽기를 시도한다.

/정삼필기자 camus@kwangju.co.kr

**영화박스**  
www.megabox.co.kr

1관 바르게살자 (154)  
2관 궁녀 (184)  
3관 내.나.이.아리 (124) / 러시아워3 (154)  
4관 행복 (154)  
5관 레지던트아일랜드3 (184)  
6관 비커링제인 (124) / 브레이브원 (154)  
7관 카핑 베토벤 (124)  
8관 어캐너머의 연인 (184)  
9관 바르게살자 (184) / 궁녀 (184)

5월 1일부터 메가박스 데이 할인이 종료됩니다.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우유값은 무료 - 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무료

**엔터 시네마**  
충장로 5가 (전화예약) 228-2700

빛고을·문화의 수도 엔터시네마  
연인과 가족의 오붓한 문화공간

내가 엔터시네마를 찾는 이유...  
저의 예미는 많지만 남들 다 모르는 것과 같이 영화관상입니다. 그래서 영화는 영화관에서 보아야 재미있고 여기는 저의 생활수칙 때문에 영화관을 찾게 되지요. 그런데 집에서 가까운 주변 영화관에 안가고 광주엔터시네마에 가는 이유가 영화자에게 관련 출입을 할 수 있어서입니다.  
다른 영화관에 가 보았지만 사람들이 몰리고 소리가 너무 크고 소리가 너무 크고 영화관내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엔터시네마를 찾았을 때는 저의 불편한 점을 알리기 위해 왔었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티켓팅 직원 덕분에 영화보는 기분이 항상 좋습니다.  
또한 엔터시네마 내부전기가 너무 깨끗해서 좋구요. 이렇듯 장려한 사외의 관심으로 고부 3시간 무료 엔터시네마가 있어서 저는 늘 영화를 보러 올때면 기분이 좋습니다. - 직장인 김민희

★주요작이 헌한 극장 http://www.entr-cinema.co.kr

**컬럼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해남점 (무역회관앞편)

1관 행복 (154)  
2관 카핑 베토벤 (124)  
3관 궁녀 (184)  
4관 궁녀 (184)  
5관 러시아워3 (154) / 비커링제인 (154)  
6관 레지던트아일랜드3 (184)  
7관 사랑 / 바르게 살자 (154)  
8관 권순영에서 남치사 (154) / 브레이브원 (154)  
9관 어캐너머의 연인 (184)  
10관 바르게 살자 (154)

\*오늘 최대 주차장 \*메입심야 상영합니다  
1588-7941  
클라우드해킹(10%) \*정리 상영중 \*성명연결 방법 \*11월 2일 - 2년

**씨너스 전대**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1관 레지던트아일랜드3 (184)  
2관 행복 (154) / 가깝잖아 뭐래! 숲속엔 (184)  
3관 궁녀 (184)  
4관 브레이브원 (164) / 러시아워3 (154)  
5관 비커링제인 (124) / 카핑베토벤 (124)  
6관 어캐너머의 연인 (184)  
7관 바르게 살자 (154)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무료주차 3시간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씨너스녹화 사무시(모바일-캐번) ARS 전화예매 1544-0070

**무등극장**  
충장로 1가 ☎ 232-9106

1관 러시아워3 (154)  
2관 사랑 (154)  
3관 궁녀 (184)  
4관 어캐너머의 연인 (184)  
5관 바르게 살자 (154)  
6관 행복 (124)  
7관 카핑베토벤 (124) / 브레이브원 (124)  
8관 비커링제인 (124) / 브레이브원 (124)  
9관 레지던트아일랜드3 (154)

\*리버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암) 3시간 무료주차 \*인터넷 예매 문의 1588-9101

**제일시네마**  
충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1관 궁녀 (184)  
2관 어캐너머의 연인 (184)  
3관 행복 (154)  
4관 바르게 살자 (154)  
5관 레지던트아일랜드3 (184)  
6관 러시아워3 (154) / 브레이브원 (154)

\*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공짜! \*  
\*무료주차 3시간 (광주 세무서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